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X

박종철 시민학교 1기

2026.6.16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

# 남태령 대첩 타임라인 2024.12.21 ~ 12.22

트랙터에서 광장으로, 농민에서 시민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같아지지 않은 채  
함께 버틴 **18시간**

| 1 12/21 오전                                                                                      | 2 12/21 오후 1시경                                                                                                                 | 3 12/21 오후                                                                                                       | 4 12/21 저녁                                                                                            | 5 12/21 밤                                                                                                       | 6 12/21 심야 ~ 12/22 새벽                                                                                               | 7 12/22 오전                                                                                                         | 8 12/22 오후                                                                                                         |
|-------------------------------------------------------------------------------------------------|--------------------------------------------------------------------------------------------------------------------------------|------------------------------------------------------------------------------------------------------------------|-------------------------------------------------------------------------------------------------------|-----------------------------------------------------------------------------------------------------------------|---------------------------------------------------------------------------------------------------------------------|--------------------------------------------------------------------------------------------------------------------|--------------------------------------------------------------------------------------------------------------------|
|                |                                               |                               |                    |                              |                                  |                                 |                                 |
| <b>농민 상경</b>                                                                                    | <b>경찰 저지</b>                                                                                                                   | <b>시민 집결</b>                                                                                                     | <b>광장 형성</b>                                                                                          | <b>돌봄과 연대</b>                                                                                                   | <b>남태령의 기적</b>                                                                                                      | <b>함께 버티기</b>                                                                                                      | <b>행진 재개</b>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봉준투쟁단 트랙터 상경 시작</li> <li>윤석열 정부 규탄, 농정 개혁 요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태령 일대 차벽 설치 및 대규모 병력 배치</li> <li>트랙터 대치 시작</li> <li>현장 영상 SNS 확산, 전국적 관심 집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민들이 막혔다”는 소식 확산</li> <li>여성, 청년, 성소수자, 노동자, 시민사회 등 시민들 속속 합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 자유발언 시작</li> <li>“나는 ○○입니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광장에서 연결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햇팍, 담요, 김밥, 라면, 커피, 생수 등 자발적 지원 이자집</li> <li>“남태령 아스팔트 동지” 탄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백 명의 자유발언 노래, 응원봉 물결</li> <li>트랙터와 시민의 공존</li> <li>교차적 연대의 광장 형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밤샘 집회 지속</li> <li>전국 각지에서 추가 참가자 도착</li> <li>온라인 생중계 시청자 수만 명 유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과 협상 진행, 트랙터 행진 부분적 재개</li> <li>장시간 대치 종료</li> <li>“남태령을 지켜냈다”</li> </ul> |
|              |                                             |                              |                  |                            |                                |                               |                               |

## 핵심 키워드



농민



트랙터



차벽



실시간 확산



자유발언



돌봄



교차적 연대



시민항쟁



민주주의

## 남태령 대첩은

농민과 시민이 만나 새로운 민주주의를 경험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 우리는  
연결되어  
더 강하다!





대체 상황 발생시  
1. 민변 (노란색)  
2. 야당 양각자 (내란의힘 제외)  
3. 해병대 예비역 2군대  
4. 안보총/신남 등 조합

경찰은 배  
차



← 트래क्टर  
2번 출구



#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선언문

남태령.

그곳은 평등이 우리의 몸을 통과한 자리였고,  
돌봄과 환대가 그 중요성에 걸맞은 위상을 되찾았고,  
민주주의가 제도 밖에서 다시 태어난 현장이었으며,  
새로운 역사가 현재형으로 발생한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우연한 사건으로 남기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그날을 계속 살기로 결심했다.

##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선언문

우리는 가장 오래된, 중요한 것들을 차별과 혐오로부터 지켜낼 것이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을 주변부로 밀어내는 사회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민주주의의 중심으로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남태령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

민주주의의 진화 /  
민주주의의 재경험, 재역사화

각자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단색에서 무지개색으로 광장의 풍경, 지형의 변화



그 곳에 함께 있는  
동지에 동지가 된 사람들



차별금지법  
지금당장 제정하라



天命

젠더차별, 모든 차별  
박살내자

기후정의  
퀴어正義

팔레스타인에  
解放을

장애인도 퀴어도  
함께 사는 민주주의



조직화, 관계맺음, 연대의 실행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든다.”

새로운 기술, 미디어의 전파력과  
직접 몸으로 만나는 공동체 경험의 융합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의 운동을 찾아서

그리고,

당신의 운동을 찾아서...

##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접주 大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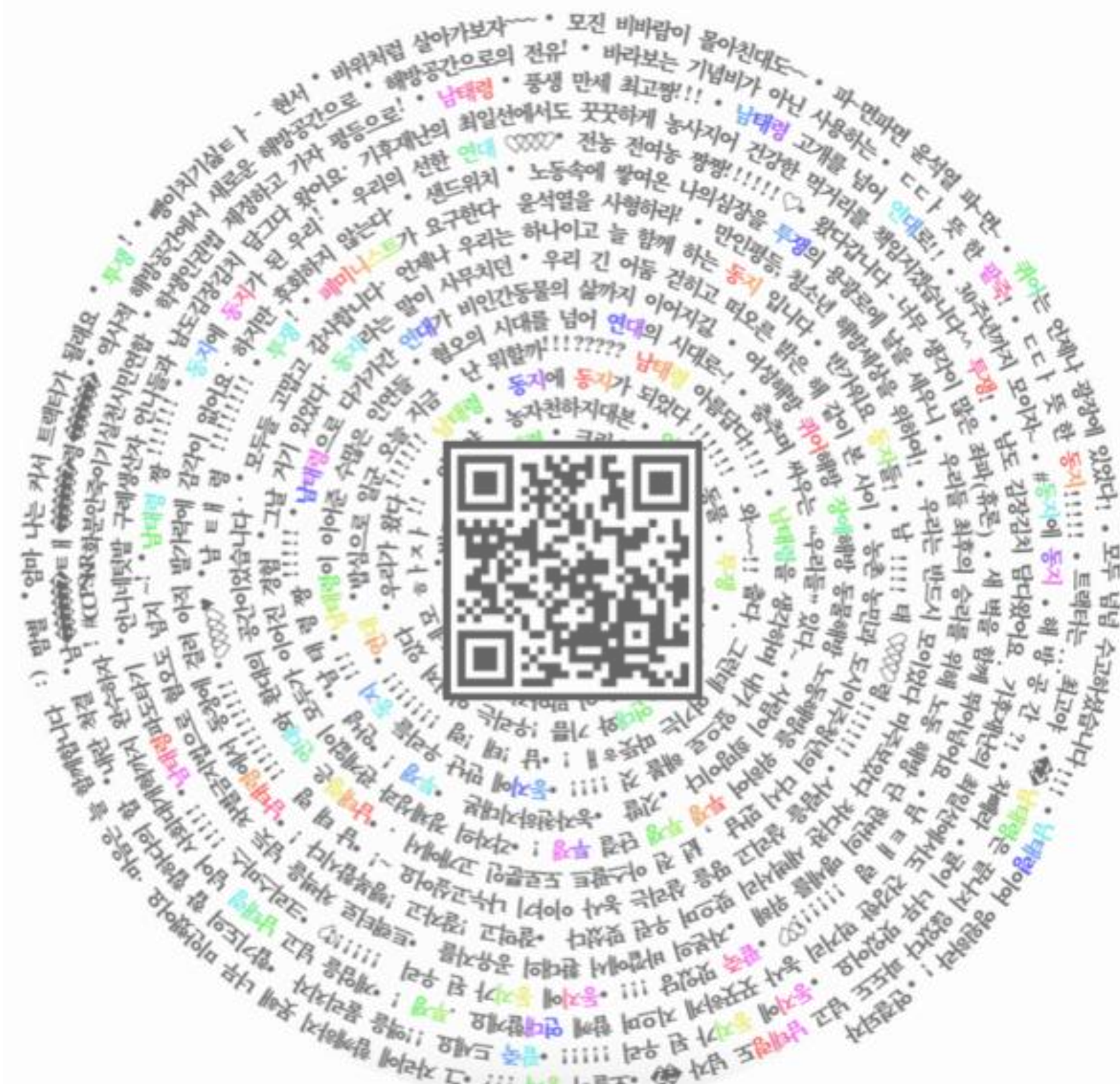
And more...



## 동학의 사발통문과 남태령 파도타기 사이의 연결

##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접주 大 모집

지구는 차갑게 🥶  
연대는 뜨겁게 🥵



어떻게 만날 것인가

-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 모두의 광장입니다”

##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

민주주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민주적 집회 참여와 실천에서부터 시작해봅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여자라는 이유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병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아유를 보내거나 “중요하지 않다” 말하며 배제하거나  
반말하며 하대하거나 “장하다” “대견하다” 미숙한 존재로 대하거나  
“예쁘다” “아름답다” 외모를 평가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다양한 사람들의 존재 특성이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집회에 참여한  
우리의 “지금”부터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민주적 집회는 집회 참여자가  
서로를 평등하게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우리 모두의 광장입니다”

##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

함께 약속합니다,

1. 서로가 서로의 광장이고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만들어갈 민주주의는 지금 바로 이 곳에서 시작합니다.
2. 민주주의는 성별, 성적지향, 장애, 연령, 국적 등 서로 다른 사람이 배제되지 않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3. 집회 발언 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여성에게 ‘마음도 얼굴만큼 예쁘다’, 청소년에게 ‘기특하다’, 장애를 빗대어 ‘눈 먼 장애인과 같다’, ‘정신적 불구 상태’ 등)
4. 특정 대상에 대한 욕설이나 차별, 혐오, 외모 평가 발언 없이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싸울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동지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그렇구나, 알아두겠다”

만남의 윤리와 태도



화물연대 CU본부 앞 서광석 열사투쟁 현장에서 남아동 연대발언



섞이고 오염되며 변화하는  
차이와 다양성, 평등의 시간

“혁명은 주변부에서 온다”  
따로, 또 같이.

박종철 시민학교 취지문 발췌

-

“정답을 내리기보다 날카로운 질문을”

“누구도 외롭게 남겨두지 않는 수평적 관계를”

“모든 외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민주주의를 논하는 자리”

= 미래를 조직하는 공동체

남태령 자유발언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다성적 목소리

미래의 말: 남태령에서 오는 메아리

<https://namtaeryeong.net/echo>

진실의 힘 발언 녹취를 토대로 제작한 인터랙티브 작품.

2026 광주 오월미술제, 대구 로컬포스트 출품.

남태령 자유발언을 매개로 한 지역과의 만남

민주주의는  
수동이다.



어떻게 굴릴 것인가?

세대 간 바톤터치

-

동료 간 바톤터치

= 시간의 투쟁, 그리고 돌봄과 협업의 기술

# 남아동 접수 되기

